

마네가 본 19세기 파리의 욕망
— 《오페라극장의 가면 무도회》를 중심으로—

와세다대학교대학원 문학연구과 미술사학코스

석사과정 2년 나카무라 마노

에두아르 마네 (Édouard Manet, 1832-1883) 는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그는 종종 대도시 파리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을 주제로 그렸다. 《오페라극장의 가면 무도회》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작품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하며, 기존에는 당시 사육제 때 매년 개최된 오페라극장의 가면무도회에서 불순한 관계를 추구하던 남녀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라 여겨져 왔다. 그러나 회화사의 문맥에 따라 이 작품을 검토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본 발표에서는 1차자료와 함께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작품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화가가 이 작품의 주제를 통해 동시대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을 포착하고 표현해냈는지를 재고한다.

사육제 때는 파리 곳곳에서 가면무도회가 열렸으나,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인기있었던 것이 오페라극장의 가면무도회이다. 참가자는 분장을 하고, 온종일 춤을 추며 그곳에서 만난 이성과의 하룻밤의 연애를 즐겼다. 19세기 전반부터 화가들은 오페라극장의 홀에서 춤추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과 회장의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장면들을 기록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것은 대중적인 미디어였던 판화가 대부분이었다. 종교화와 역사화를 중시 여기는 유채화의 세계에서 이와 같은 주제는 선호되지 않았으며, 만약 그린다 하더라도 다른 제재를 화면에 집어넣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거나 교훈화로 그 성격이 변하여 주제가 가진 통속적, 향락적 측면을 부정하였다.

마네의 작품의 무대는 오페라극장의 홀이 아닌 복도이며, 그곳은 성매매과 부적절한 관계를 원하는 남녀가 모이는 장소로 유명했다. 이 작품은 그곳에 모인 연미복 차림의 남성과 다양한 복장을 한 여성 간의 미묘한 관계를 묘사해내고 있으며 같은 장면을 그린 판화작품과 인물의 모습, 구도에 있어서 유사하다. 즉, 마네는 주제의 성격을 부정하지 않고, 가면무도회가 열린 홀 중앙에서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을 그린 것이다.

마네의 작품에 있어서 이러한 동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강조하는 부분은 화면 상단부에 보이는 여성의 다리를 묘사한 부분이라 지적되어 왔다. 19세기에 여성의 다리는 남성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당시 판화에서는 화면의 테두리를 이용하거나 모티프를 겹치는 방법으로 신체부위 중 다리 부분만을 잘라 그려내면서, 여성의 다리에 대한 남성의 성적 시선을 풍자하였다. 《오페라극장의 가면무도회》에서도 여성들의 다리만을 그려, 여성의 육체가 남성의 성적 대상물이었던 점이 표현되었다고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본 발표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수용적 입장이었던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한 입장을 즐겼다는 점이다. 즉, 《오페라극장의 가면무도회》는 당시의 유채화가 주로 고상한 주제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면무도회에 나타난 동시대 사람들의 욕망에 가득찬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해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